

저자와의 대화

'삼국유사 현장기행' 펴낸 이하석 씨

"삼국유사는 한민족 삶의 거울"

"우리 것을 찾자는 의도에서 시작은 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처음엔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뒤적여 나름대로 지도를 그려서 표시도 돼있지 않은 풀더미를 헤쳐나갔습니다."

(삼국유사의 현장 기행)(문예선책 펴냄)의 저자 이하석씨(영남일보 생활부장)는 출판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의 어려움을 먼저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단서가 잡히고 삼국유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때의 반가움과 기쁨도 매번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씨의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려주듯 삼국유사의 역사현장을 재구성한 것. 71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김달진문학상과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시인답게 7백여년이라는 시간의 까마

람으로 이끌어올린다. "이차과 세상만물이 성주공(成住壞空)이듯, 옛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지워집니다. 그 지워짐을 나쁘다, 좋다고 말하기 이전에 변화하는 순간들을 쫓아가는 의식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

대한 사랑없는 엄두도 못낼 크나큰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죠." 아울러 삼국유사는 일연스님의 땅사랑의 절묘한 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씨는 "유사 속에는 대성인을 땀으로 등장시켜 높음과 낮음을 가능하게 하는 관념을 깨뜨려버리는 등 스님의 품념은 불교관과 역사가가 배어 있다"며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명사추천



한국불교시선

경전으로 이름받은 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불교 1천 6백년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값진 가르침을 전하는 저술들은 수없이 많다. 열릴 서가를 열람해보니 옛 선사들의 어록은 물론 나와 함께 이 시대의 공기를 호흡하며 살았던 스님네들의 법어집도 심어준다.

작품이 수록돼있다. 작고한 시인으로는 오상순 조지훈 최연희 김달진 김광섭 신석초 등등. 박희진 신동집 오규원 이형기시인들을 해방전과 해방후의 시인들로 나눠 무려 76명의 시인이 등장한다.

이 책 편집자의 말에 따르면, '시선'은 70년 7월에 창립한 한국불교문화협회의 첫 사업으로 간행했으며, 불교와 연관을 가진 작품 3편씩을 자신(自選)토록 해 실었다고 한다. 작고시인의 작품은 편집위원들이 선정했다.

이중에서 보면, 70년대 초 작품이 수록돼있다. 작고한 시인으로는 오상순 조지훈 최연희 김달진 김광섭 신석초 등등. 박희진 신동집 오규원 이형기시인들을 해방전과 해방후의 시인들로 나눠 무려 76명의 시인이 등장한다.

그 책들은 언제 펼쳐보아도 누런 종이에 알일이 박힌 검은 활자들이 꿈틀대는 것만 같다. 가끔은 내 눈이 착시를 일으키는 것인가 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다. 말솜은 말씀을 떠나서 있듯, 활자 또한 활자가 아니어야 한다. 모를지기에 나에게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 책이 참다운 불서가 아닐까 하는 심정은 생각도 해본다. 실지 않은 상상이다.

김·을·은 삼장에는 끼이지 못하지만 해를 더해 묵어갈수록 빛을 발하는 책이 있다. 비록 소품이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는 <한국불교시선>이다. 책 뒤표지를 열어보니 벌써 20여년전, 1973년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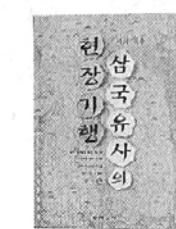


김명운 (평화통일위원회 수석부의장)

"7백년 時空 넘어 일연스님 '우리 땅 사랑' 다시 확인" 도리사·영취사지등 60여곳 설화·민담·전설 소개

특함을 문학작품 상상으로 풀어내고 있음이 돋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답사자의 감상으로 치장한 현장기행이 아니다. 도리사 영취사지 고선사지 등 60여곳에 담겨있는 설화와 민담 전설을 소개하고 그곳의 문화예술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유적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의 보존상태를 진단해 독자들을 '우리 것 사

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정신의 자양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씨는 시간으로부터 탈주를 시도해 일연스님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유적지 곳곳에서 확인한 것은 일연스님의 '우리 땅 사랑'이었고, 그래서 일연스님의 업적



◇이하석씨는 <삼국유사>의 불교관과 역사관에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새삼 큰 무게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삼국유사가 단순히 자료만을 모은 역사책이 아니라 현저한 담사를 거쳐 꼼꼼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70을 훨씬 넘은 노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혹 저작됨에 작업을 맡기고 감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땅에

정성운 기자

역경원, 심밀해탈경등 6권 발행

고승문집 1권도 펴내 최근들어 활발한 편찬작업을 벌이고 있는 역경원에서 6권의 경전과 1권의 고승문집을 동시에 펴냈다. 간행목록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밀해탈경:유가율의 근본 경전으로, 깊고 비밀히 상수하

는 진리를 행상하고 미혹에서 해탈케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부모 은혜의 지중함과 효의 공덕을 실천 우란분경 효자경 등을 포함시켰다. △심밀경:불교도의 수행지침과 일상적인 수행의 중요한 덕목들을 간추린 팔대인간경 사십이장경을 포함하고 있다. △무소유보살경:부처님을 믿

는 마음만 있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 현실세계의 도덕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지세경 유허회회경 대인반수의 경 등 포함. △반나원경: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후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과거 7월에 대한 설법을 담은 불설칠불경 비바사불경 포함. △지혜와 자비의 말씀(숫타 니파타):불교최초의 경전으로,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과 상황을 전해준다. 불교승려 나아가 세나와 그리스도교 밀란다와의 불교교리에 관한 문답을 기록한 밀란다왕문경을 함께 실었다. △보조국사집:권수정해결사 문 수심결 진심직설 원동성불론 간화결의문 염불요론 계초 심학인문 화엄론잡서 법집법행록잡요사기를 수록.

만해·조지훈시인등 76명 작품 마음 편안케하는 '언어의 법당'

에 나온 책이다. 한국불교문화회가 편찬했고, 서정주 김우수 고은 송해 등 제재와 석지현 스님이 편집위원으로 참숯해 동국역경원에서 펴냈다. 뒷장부터 소개함은 불교문학이라는 등불이 요즘에는 그 빛이 가물거릴까 두려워 당시의 이 책을 펴낸 작업이 너무 새삼스럽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불교에도 이만한 문학작품이 있었음을 은연중 자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다.

만까지 우리 시대의 현역시인 대부분이 창작의 자양분을 불교에서 섭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는 언어를 빌어서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지만, 한편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언어로부터 해탈한다. 시의 묘미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인들이 불교에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시집은 불교와 시가 만나는 결정체이다. 120여권이 넘는 작품 가운데 가끔 아무데나 열어 읽곤 한다. 뭘 읽든, 깨닫는다 하는 생각이 이전에 났던 편안하다. 나의 감상법이다. 조지훈시인의 '古寺'를 옮겨본다. 木魚를 두드리다//졸음에 겨워//고요한 상아 아이도//잠이 들었다//부처님은 말이 없이//웃으시는데//西域萬里人//눈부신 노을아래//모란이 진다.

어둠의 빛으로...

김자우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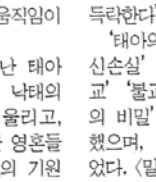
인간의 잘못된 행 위중에 사회적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낙태문제이다. 종교단체에서는 낙태반대운동을 벌여왔으나, 정작 불 살생계와 자비심을 강조하는 불교계



이 종교·사회적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획의도. '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에서도 "태아를 죽인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하고 천도공양하면 죄 업이 소멸되고 이교

낙태 참회법 경전통해 제시

에서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미미하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는 낙태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 낙태에 의해 사라져간 영혼들에 대한 사회와 천도의 기원



독라한다"고 이른다. '태아의 사랑과 천도' '입신손실' '사람의 탄생과 태교' '불교경전에 나타난 태아의 비밀' 등 4편의 글로 구성했으며, '53존불'법집도 실었다. <말할, 5천5백원>

화제의 책

인식론·논리학

사이구사 미쓰요시 역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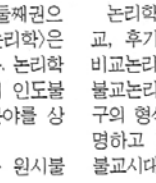
한때 불교와 인식론 논리학의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종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문의 방법인 인식론을 탄생시키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다.



교와 초기대승불교 후기대승불교 후기대승불교의 인식론으로 나눠 인식론의 문제, 타당성의 문제, 진리성의 문제, 인식의 표현하는 말의 적용범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불교의 인식·논리학적 차원 상술

'불교학 세미나' 둘째권으로 나온 <인식론·논리학>은 각각 4편의 인식론과 논리학에 관한 논문을 실어 인도불교에서 발행한 두 분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식론 부분에서는 원시불



논리학 부분은 중기대승불교, 후기대승불교, 인명사상, 비교논리학사설로 구성했으며 불교논리학적 삼지각법을 서구의 형식논리학과 대비해 설명하고 있다. <심법집 옮김, 불교시대사, 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소설 선	고 은	창작과비평사
2	하산	홍 주	불 지 사
3	삼에서 깨어나기	탁 낙한	장경각
4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5	달마의 제자들	고 우영	불 지 사
6	선 100문100답	진 제	파라나라
7	나를 보게 하소서	현 재	민 족 사
8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9	영가전환법어	석 성우	토 방
10	알기쉬운 불교	편 성부	불교방송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연꽃의 향기(선용 편저)=지혜제일 사리불, 설법제일 부루나존자 등 부처님 10대 제자

의 일대기를 각 경전에 나타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꾸었다. <불교세

'만다라' '여보게, 저승갈때...' 등 불서 '종로서적 베스트 셀러 50년전' 전시

1980년 김성동의 <만다라>, 1993년 석용산스님의 <여보게,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지>의 불교도서가 '종로서적 베스트 셀러 50년전'에 베스트셀러로 선정. 지난 10일부터 종로서적 6층에서 전시되고 있다. 1945년도부터 1994년에 이르

기까지의 인기서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소설, 수필, 시 등 50권이 선보이고 있다. 9월10일까지 개최될 '베스트 셀러 50년전'에서는 1962년 일업스님의 '침춘을 불사르고'도 볼 수 있다.

계출관부, 4천5백원)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북을 받는 비밀(한국불교선승회 편)= '효행진신' '한국인의 삶' '불교의 명절과 행사' 등의 주제로 범종 도성 각성스님등의 법어를 묶었다. 5, 6편에서는 대부모은중경과 목련경의 원문과 한글번역 해설을 붙였다. <이화문화출판사, 8천원>

▲기독교와 선(라즈니쉬 지음)=기독교 믿음의 허구성과 기독교 전라의 기만성을 질타한 기독교 비판서. 라즈니쉬 특유의 해박한 지식과 재치있는 예화를 곁들여 낱말이 폭로하고 있다. 원제는 '기독교와 선-가장 치명적인 독과 모든 독의 해독제'. <정신문화사,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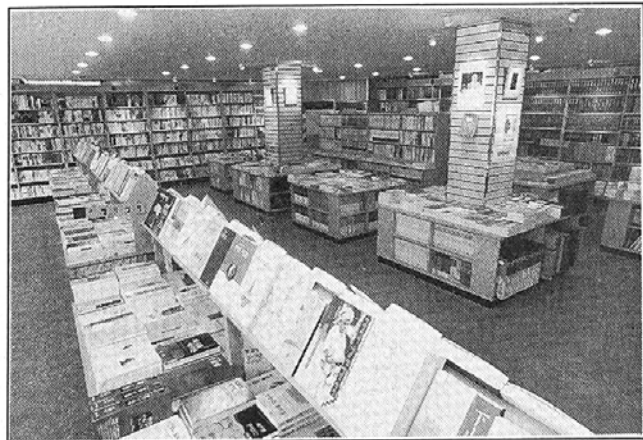
불교, 기독교, 법당, 기독교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의 성장은 곧 불교문화의 성장입니다



독서회원 가입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서점 발행 신간안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의 중요한 서비스로 알찬 독서생활을 만끽하십시오. 현대불교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님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통신판매

미처 회원가입을 못하신 고객 여러분도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적을 신청해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며 우송료는 본 서점이 부담합니다.



김희주 (학부)



박현 (불교국단 '비밀', 대표)



조진화 (주부)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찾아오시려면

